

SCAAA

RYSE 서울



사진: 김용관

RYSE 서울 2018년 6월 21일

SCAAA가 디자인한 Ryse 호텔은, 홍익대학교에 인접해 있는 것뿐 아니라 크리에이티브한 에너지와 나이트 라이프로 잘 알려져 있는 홍대지역에 새롭게 문을 연 Autograph collection 호텔이다. 기존의 비즈니스 호텔을 대체하는 이 새 호텔은 지상 20층, 29,219 평방미터, 274개의 객실로 구성되어있으며, 도심에 위치한 2,432 평방미터의 사이트 지하로는 5개층의 주차공간, 하역장 및 기타 지원시설이 있다. Ryse 호텔은 2018년 3월에 완공하였다.

컨셉 디자인 단계부터 이 호텔 디자인 의도는 한쪽으로 면한 차로 붐비는 대로와 다른 한쪽으로 마주한 홍대 거리의 다양한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서, 조심스럽게 이 지역의 활동에 배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보행자 레벨에서는 넉넉한 크기의 투명유리가 투숙객, 리테일 고객, 지나가는 행인들을 시각적으로 연결하며, 사이트에 인접한 두 도로를 연결하면서도 지상층을 가로지르는 공공 보행로와 거리에 면한 카페의 접이식 유리문 역시 이러한 투과성과 소통을 극대화한다. 주변의 인접한 빌딩들처럼 이 호텔의 공용 공간-로비, 레스토랑, 라운지, 미팅 룸, 연회장, 리테일-은 5층까지 이어져 있으며, 호텔의 객실은 6층에서부터 시작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물의 외관은 검정 화강석과 유리 커튼월과 같은 심플하면서 품격 있는 재료 팔레트로 구성되었다. 객실층의 연속적이고 넓은 면의 유리 파사드는 낮 동안에는 이 지역의 변화하는 특징과 텍스처를 반영하며 석양이 진 이후에는 그 안의 라이프를 살며시 드러내 준다. 저층부 유리면으로부터 떠 있는 석재 파사드는 세 가지의 다른 표면 마감으로 3차원적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다이내믹한 패턴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물을 점진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의 새로운 면을 찾을 수 있게 한다. SCAAA는 이러한 요소들을 “재차 보게 되는 건축”이라고 말한다.

프로젝트 팀
Planning & Design Consultant | SCAAA
Architect of Record | 해안 건축
Interior Design | Michaelis Boyd
Branding Consultant | Marc & Chantal

(고해상도 프로젝트 이미지 파일은 요청에의해서만 제공 가능합니다)

SCAAA

About the firm

SCAAA는 미국 로스 앤젤레스에 위치한 디자인 회사로 2013년도에 설립되었다. 뉴욕에서 젊은 디자이너로서 만났던 세명의 공동대표인 스티븐 송, 최영환, 로버트 에이체슨은 현재 에너지 넘치는 디자인팀과 함께 미국과 아시아의 다양한 상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잠정적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컨설팅 이외에도, SCAAA 팀은 그래픽, 인테리어, 건물 재개발 및 신축을 위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들의 클라이언트는 분석과 디자인에 특별한 접근방식을 찾는 개인 혹은 기업이다. SCAAA 스튜디오의 작업은 대부분 클라이언트의 궁극적인 목표를 깊이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협업적인 논의와 리서치를 통해서 이어지는 디자인 솔루션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실행한다. SCAAA가 진행한 미국 및 국제 프로젝트로는 호텔 인테리어 레노베이션, 기업 사옥,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공유 오피스, 그리고 Ryse 호텔이 있다.

SCAAA의 설립자로서 스티븐 송대표는 문화적 대화의 폭넓은 영향력을 회사의 작업에 쏟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로스 앤젤레스에 위치한 Hammer Museum과 SCI-Arc의 이사회 멤버로서, Clinton Foundation Health Access Initiative의 행정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